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권력이미지의 표현특성

김 미 경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역량개발센터

The Power Images in the Style of a Leader:

Expressive Characteristics for the Power Images on the Portrait of Henry VIII

Kim Mikyung

Leadership 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wer images in the style of a leader: through the focus on the portrait of Henry VIII. Study methods on the literature concerning viewpoints of power and image in the early modern age and the subjects of power are being used for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visual data from National Portrait Gallery, British Library and the internet are used for exploratory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style of Henry VIII who represented the image of political power, the modern political phenomenon can be defined. Such phenomenon which displays images of political leaders from the study indicate an effective strategy. Second, the religious, a diplomatic representation for the style of Henry VIII powers, such as costume style and somatic visual images, represents the dignity and power by delivering visible internal attributes. Thus, the role model recognized by the society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leadership style affects the acknowledgement and belief by the people.

Key words : costume style(복식 스타일), Henry VIII(헨리 8세), power image(권력이미지), somatic style(신체 스타일)

Corresponding author: Kim Mikyung, Tel.+82-2-2077-7266, Fax.+82-2-2077-7126
E-mail: kimmk@sookmyung.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1-1303- 0036.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리더의 스타일은 권력이미지를 창출하는 외재적 단서로 대중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리더의 신념을 표출하는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역사 속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타일의 다양한 형태를 차용하여 권력이미지를 창출해 왔다. 복식과 신체는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된 권력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의 이미지는 복식과 신체의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 신체와 가장 밀접한 형태로 세컨스킨(Second Skin)이라 칭하는 복식은 인간이 드러내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을 소마틱 스타일(somatic style: 신체적 스타일)과 복식스타일로 나타낸다. 인류는 신체와 복식을 통해 신분과 계급, 젠더와 섹스 인종과 문화, 종교 등 당대의 사회적 취향과 권력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권력의 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복식의 기능에 대해 Fuchs(1999/2001)는 복식을 계급 차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으로써 권력과 재력의 상징으로 보았다. Simmel(2006)은 인간의 삶을 대립적 힘들의 투쟁과 조정과정으로 인식하며 인간의 내재된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복식의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함께 개인적 차별성을 나타내는 속성을 가진 계층적 차이의 산물로 인간의 계급 지향적 차별성과 권력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단서이다. Shusterman(2010)은 사람의 인식과 능력을 확장시키는 자기인식의 소마틱 스타일에 대한 논의에서 Foucault의 자기꾸미기는 자기인식과 자기변형의 중심으로서의 몸을 옹호하면서 서서 외적으로 자신을 스타일화하며 자아의 내부 감각(태도, 성격, 가치)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변형의 매개체로서의 복식과 신체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 사회를 이끄는 정치적 동력의 원천으로 왕정 정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근세시대 군주나 귀족의 신체적 과장과 복식 스타일은

권력이미지의 아이콘으로써 복식에 내재된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특히 왕이나 귀족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는 복식의 착용 형태 뿐 아니라 신체의 변형이나 문장, 모자, 신발,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의 형태를 통해 투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이나 신체 장식을 사치와 허영의 기표로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해온 기존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자신과 타자와의 경계에서 공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인간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함의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소마틱 스타일과 복식 스타일에 나타난 리더의 권력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리더의 스타일에 함축된 권력이미지에 대한 조명은 향후 복식의 사회학적 의미와 정치적 확장성을 도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리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가 대중에게 미치는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규명을 통해 복식스타일과 소마틱 스타일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시키고 시각적 이미지에 함축된 내·외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를 근세시대 절대왕정의 기초를 수립한 헨리 8세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권력이미지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절대왕정으로 왕권의 영향력이 활발했던 근세시대로 한정하고 중세시대 신권중심의 체제를 왕권중심의 절대왕정 체제로 이양하기 위해 권력의 집중화가 절실했던 근세시대 영국 튜더왕조의 군주 헨리 8세의 재위기간(1509~1547년)동안 그의 초상화에 나타난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사회적 권력이미지의 상징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세시대 권력이미지의 관점과 주체에 대한 고찰

첫째, 근세시대 권력이미지의 관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력을 내재화한 이미지와 권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권력이 복식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가시화되며 나타난 권력의 과시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근세시대 권력의 주체와 그들에게서 나타난 권력이미지의 특징을 조명한다. 근세 시대 권력의 주체를 규정하기 위해 중세까지 권력의 핵심이었던 종교로부터 신과 인간의 분리를 통해 왕권확립의 기초를 세운 튜더왕조를 중심으로 권력의 주체와 권력이미지의 특징을 정치 리더의 소마틱 스타일과 복식 스타일로 한정하여 고찰한다.

2) 근세시대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의 사례 분석

근세시대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헨리 8세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를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권력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왕권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미지를 통해 구축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인 헨리 8세의 복식 스타일을 통해 권력의 힘을 암시한 이미지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종교적 권력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통해 종교적 수장으로서의 통제권을 가진 헨리 8세의 이미지를 소마틱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외교적·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권력의 주도권을 이미지로 가시화한 헨리 8세의 권력이미지 전략에 대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장엄한 의례행렬과 복식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고찰과 탐색적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적 고찰은 권력의 관점과 이미지에 대해 Foucault의 권력이론과 인간의 몸에 내재된 권력의 관점을 소마틱 스타일로 규정하여 스타일과 이미지 연구에 역량을 보여준 Shusterman의 소마틱 스타일

이론을 중심으로 권력의 관점과 이미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권력이미지와 복식 스타일과의 관계는 학자들의 이론과 복식사 관련 전문서적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탐색적 연구로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의 이미지를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소마틱 스타일과 복식 스타일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웹사이트(www.npg.org.uk)와 튜더왕조 역사관(Tudorhistory) 웹사이트(www.tudorhistory.org),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웹사이트 (<http://www.bl.uk>) 및 헨리 8세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및 전문서적과 논문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II. 근세시대 권력의 관점과 주체

1. 권력의 관점과 이미지

권력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힘의 논리로 Foucault는 권력을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정교한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Foucault에게 권력이란 사람 사이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그것이 작용할 대상을 형성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한다고 보았다. Foucault(1975/2003)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인간의 몸을 권력이 행사되는 주체로 언급했다. 즉 권력은 인간의 몸을 통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으로 이미지화되어 생산된다. Shusterman은 Foucault의 이론을 중심으로 몸을 힘의 상징으로 보고 서양 군주제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형이상학적 관념이 담긴 왕의 몸을 권력의 관점에서 소마틱 이미지(somatic image)를 설명하였다.

권력을 상징하는 왕의 몸은 일차적으로는 천성적이고 개인적인 몸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페르소 또는 왕의 본질적 신성한 권력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husterman, Lee, Kim, Kim, Lim, & Shin, 2013). Shusterman은 몸으로 표현된 소마틱 스타일이 정치적인 권력의 중요

한 형태인 카리스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의 관점을 정치인의 소마틱 스타일로 설명하였다 (Shusterman et al., 2013).

Shusterman et al. (2013)은 소마틱 이미지로 표현된 힘의 논리가 정치, 사회, 문화, 젠더의 측면에서 형성되어지는 권력의 양상과 메카니즘에 대해 논의하면서 권력의 관점을 스타일과 패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였다. Sohn(2007)은 근세시대 권력의 관점을 궁정의례라는 문화적 코드와 정치권력과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해석하였으며, Liddle(as cited in Sohn, 2007)은 근대 르네상스시대의 궁정의례에 담겨진 권력이미지를 시각의 자극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해석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행해진 궁정의례는 화려한 행렬을 통해 왕권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가시화하는 권력이미지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근세시대 권력의 관점은 소마틱 스타일이나 왕의 복식 및 장신구 등 상징적 요소를 통해 지배와 복종이라는 권력의 추상적 이미지를 제도화시킴으로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기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시화 하기위한 복식의 차용은 장신구나 문장, 모자, 러플, 신발 등 복식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시 부족시대에 행해진 장신구와 문신의 형태는 가장 일차적인 권력이미지의 형태로 복식과 신체를 통한 힘의 상징적 기표라 할 수 있다. 권력의 과시의 현상으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복식 규율과 금지령 또한 복식에 함축된 권력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제도화

한 현상이다. Figure 1, 2, 3은 고대부터 근세까지 왕과 귀족의 권력체계를 상징하는 지배와 복종의 단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ure 1의 고대 이집트의 Tutankhamren 왕과 왕비의 부장품에 사용된 장신구 파시움(passium)은 독수리의 날개를 형상화한 독수리와 뱀 모양의 목걸이로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식품이다. 독수리는 신적 존재로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과시의 의미를 담고있다(Chung, 1997). Figure 2는 중세시대의 앞코가 뾰족한 신발 ‘폴레느(poulaines)’로 앞코의 길이가 사회계층의 권력이미지를 나타내는 기표로 상류층으로 갈수록 앞코의 길이가 더 뾰족하게 길어지고 신분에 따라 길이를 규제하였다. Figure 3은 사회적 계층화를 대표하는 근세시대의 러프로 계층 간의 구별을 통해 권력의 이미지를 나타낸 장식이다. 평민은 작은 형태의 러플을, 귀족은 주름이 깊고 큰 러플을 사용하면서 부와 권력 과시의 극한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근세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왕족이나 귀족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드레스와 실크와, 모피 및 값비싼 보석이나 자수, 장갑, 가발과 모자, 단검 등 복식을 통해 신분을 과시적으로 구별하며 권력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Bourdieu(1995/2012)는 문화를 향유하는 상류층은 아비투스(abitus)를 통해 자신을 하층민과 구분 짓기 하여 권력과 지배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즉 권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추상적이고 내재된 힘을 이미지를 통해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통제와 질서의 계층적 위계화를 외연적으로 구축한다. 따라서 복식과 장식등

Figure 1.

Passium of Egypt

- <http://bloge.naver.com>

Figure 2.

Poulaines of Medieval

- <http://socialevolutionforum.com>

Figure 3.

Ruff of Renaissance

- <http://www.npg.org.uk>

문화적 코드를 통해 조명된 권력이미지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 속에 내재된 은밀하고 의도적인 권력의 형태를 미학적으로 차용하여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생산하는 권력창출의 도구이다.

2. 권력이미지의 주체

Foucault(1975/2003)는 인간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자율이 아닌 타율의 권력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체 형성은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내면화되어 만들어지며 권력에 의해 형성되어졌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파놉티콘(panopticon: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며 권력형성과 대응관계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이미지는 주체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단계로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인식되어 진다면 Foucault의 이론처럼 권력이미지는 타율에 의해 내면화되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체에 영향을 미치며 타율에 의해 동질화 되면서 조작된 이미지에 근거한 가상적인 주체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인 근세시대의 권력이미지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권력을 내재화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다.

근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중세의 기독교적 권위가 무너지면서 정치권력의 주체가 신과 교황으로부터 왕과 군주 중심으로 전이된 왕권강화의 절대왕정 시기이다. 국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어 권력의 가시화는 왕권확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으로 왕과 군주에게 있어 정치권력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권력이미지의 활용은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권력이미지는 정치적 목적 및 사회 제도와 이념을 우회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권력행위의 수단으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체를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개체와 공간은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근세시대 정치권력의 이미지는 왕권의 위엄을 확립하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위상을 드러내는 왕과 군주의 복식이나 문장 스타일과 신체적 스타일 속에 의도된 권력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특히 근세시대 절대왕정의 기초를 세운 튜더왕조(Tudor dynasty)는 정통성의 부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지를 통한 정치권력의 힘을 과시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왕조이다. 튜더왕조의 정치적 상징물인 '튜더 장미' 문장은 랭커스터(Lancaster)의 헨리 7세(Henry VII)를 상징하는 붉은 장미와 요크(Yoke)의 엘리자베스(Elizabeth)를 상징하는 백장미를 결합시킨 문장으로 왕실의 건물, 옷, 서류 등에 장식함으로써 이미지를 통해 통합된 정치권력의 힘을 암시하였다. Branden(2004)는 튜더왕조를 종교와 유력한 귀족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절대왕정의 기초를 구축한 왕조로 튜더왕조의 시조 헨리 7세와 헨리 8세(Henry VIII)는 이미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전략적으로 확장시킨 인물로 평가하였다.

Branden(2004)의 주장에 의하면 헨리 7세는 왕위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영국의 왕인 Richard III의 초상화를 곱사등처럼 그리도록 하여 스타일을 통해 정치적 파워게임을 전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헨리 8세는 성직자의 권위를 축소하고 왕권의 권력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려한 복식과 장신구, 위엄 있는 자세를 담은 초상화를 제작하게 하여 이미지를 통해 정치권력의 효과를 극대화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하는 폴리티크 스타일(politic style)은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주체인 정치리더의 스타일에 나타난 복식과 소매틱 스타일은 정치권력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는 기표이다.

Bourdieu(1995/2012)는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문화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급의 위계화가 확실한 근세사회에서 지배계급인 군주의 스타일은 권력의 힘을 표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력의 메카니즘이다.

III. 헨리 8세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

튜더왕조는 교권이 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절대왕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세계사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럽전역에 미친 대영제국의 왕조로 근세 시대 정치권력의 이미지를 탁월하게 활용한 왕가이다. 튜더왕조 중 헨리 8세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시킨 리더로 그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며 정치개혁의 논리를 확장시켜 나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튜더왕조의 헨리 8세 스타일을 권력이미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헨리 8세의 스타일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는 절대적 군주로서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고용한 궁정화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초상화 작품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는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 의례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권력 이미지는 강력한 왕권을 갖춘 절대군주로서의 위엄성을, 종교적 권력이미지는 부패한 교황을 대신하여

국교의 수장으로서의 영속성을 나타낸 소마틱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교적·사회적 영향력 속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는 외교적 수장으로서의 장엄한 의례행렬과 사회적으로 전파된 장식물의 이미지를 통해 튜더왕조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헨리 8세의 권력이미지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절대군주의 위엄

1530년대 종교개혁을 단행한 헨리 8세는 성직자의 권위를 축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안을 개정하는 등 신정적 통치자로서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갖춘 이미지를 활용하여 권력을 과시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갖추었다. Figure 4는 한스 홀바인이 1536년에 제작한 초상화로 이전의 초상화와는 차별화된 형태로 왕의 권력을 과시한 공적 페르소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Branden는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스타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Figure 4.
A portrait of Henry by Hans Holbein
- <http://tudorhistory.org/henry8>

Figure 5.
The Dynasty Portrait or The Whitehall Mural
- <http://tudorhistory.org/henry8>

키가 6피트 2인치가 넘는 거대한 몸에 황금, 루비, 진주 등의 화려한 보석과 모피로 장식하고 왕의 권위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노려 보는 듯한 헨리 8세의 초상화는 사람들의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듯 차갑게 노려보고 입술은 비협조적인 로마 교황청의 주교들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듯 오므려져 있다. (Branden, 2004, p. 17)

Figure 5는 홀바인이 왕의 개인 집무실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화이트홀 벽화(Whitehall Mural)로 헨리 8세와 선왕 헨리 7세의 2대 왕족이 함께 담겨져 있다. 왼쪽부터 헨리 8세와 그의 부왕 헨리 7세가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 어머니인 요크가의 엘리자베스(Elizabeth of York)와 유일하게 헨리 8세의 후계자 아들을 낳아준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아(Jane Seymour)가 그려진 등신대 크기의 대형 초상화로 왕권의 정통성을 암시하고 있다. 화이트홀 벽화에 묘사된 헨리 8세의 자세는 짝 벌린 두 다리와 퍼프 소매로 과장한 어깨, 패드를 넣어 부풀린 더블릿(doublet)과 모피와 금사로 장식한 외투 등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자세와 외관으로 매우 위협적이며 권위적인 이미지를 시사하고 있다. Figure 6은 여러 화가들에 의해 복제되어 대중화된 헨리 8세의 초상화로 왼쪽 그림은 1545년 Hans Eworth가 그린 작품이며, 오른쪽 그림은 작자 미상의 1950년대 후

반 작품이다. Figure 7은 영국 왕실의 기사도 정신을 상징하는 단검과 왕실의 정통성과 위엄을 상징한 헨리 8세의 사파이어 반지이다.

Figure 4-7에 나타난 헨리 8세의 복식의 형태와 장식품은 왕권과 교권에 대한 신성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헨리 8세가 착용한 더블릿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단으로 된 금색직물로 흰색담비와 함께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또한 장식으로 사용된 루비보석은 영국 왕의 상징으로 선조 때부터 사용한 보석으로 매우 많은 양의 루비를 옷에 장식함으로써 왕가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얼굴의 수염과 성기를 감싸는 코드피스(cod-piece)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왕의 후계자를 계승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왼손에 들고 있는 단검은 남근의 상징이면서 영국의 명예인 기사도 정신을 상징하는 최고권위의 상징이다. 왕관대신 착용한 타조깃털이 달린 베레모 또한 영국 기사단의 상징으로 명예를 중요시한 선왕 헨리 7세의 기사단의 정통성을 계승한 기표이다. 헨리 8세는 베레모를 착용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사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은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De Vries(as cited in Shin, 2008)는 헨리 8세의 오른손에 든 장갑은 손에 착용하지 않고 들고 있음으로 경건한 신앙심을 나타내주며 장갑에 박힌 보석은 당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

Figure 6.
Henry VIII by Hans Eworth & Unknown Artist
- <http://tudorhistory.org/henry8>

Figure 7.
Henry VIII's Sword & Ring
- <http://tudorhistory.org/henry8>

였다. Brooke & Crombie(as cited in Shin, 2008)는 홀바인의 팬던트 디자인 스케치를 통해서 헨리 8세의 모자와 팬던트, 반지에 사용한 보석이 사파이어임을 증명하였다. 사파이어는 루비와 더불어 왕실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보석으로 Mikyung Kim(2012)은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의 고 다이애나비와 왕세손 케이트 미들턴이 각각의 약혼식과 결혼 발표식 때 블루 사파이어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왕실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2. 종교적 국교의 수장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스타일은 이전의 양식과는 다른 독특한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묘사함으로써 종교적 수장의 위엄을 자세를 통해 시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Figure 5의 화이트홀 벽화에 나타난 헨리 8세의 스타일은 이전의 초상화와는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의 정면상으로 권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하는 의도가 강하게 담긴 스타일이다. Lloyd & Thurley(as cited in Shin, 2008)는 화이트홀 벽화에 담겨진 헨리 8세의 이미지를 종교의 권위에 대항하는 절대왕권의 위엄과 인접 국가들과의 외

교 관계에서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고 하였다. 정면 자세는 영웅들이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자세로 신권을 부여받는 종교적 수장으로서의 헨리 8세의 권력이미지는 홀바인이 1535년에 그린 Figure 8의 '솔로몬과 시바 여왕(Solomon and the Queen of Sheba)'이라는 작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String(1996)은 Figure 8의 세밀화에 대해 홀바인이 헨리 8세의 정면 자세를 처음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교권이 헨리 8세의 왕권에 예측되어 있음을 선전하기 위해 홀바인이 헌정한 작품으로 헨리 8세가 종교적 수장임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 하였다. 전체를 압도하는 정면상과 왕관을 쓰고 홀을 든 헨리 8세의 스타일은 종교개혁을 이룬 수장으로서의 장엄한 절대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9는 '헨리 8세와 외과의사들(Henry VIII and the Barber-Surgeons)'로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헨리 8세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면을 향한 위엄 있는 스타일의 헨리 8세를 부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권력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후 헨리 8세는 종교적 수장으로서 진정한 신정적 통치자의 위엄을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헨리 8세의 왕권이 교권위

Figure 8.
Solomon and the Queen of Sheba
- <http://www.royalcollection.org.uk>

Figure 9.
Henry VIII and the Barber-Surgeons
- <http://tudorhistory.org/henry8>

에 있음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주장법을 제정한 Thomas Cromwell은 1535년에 영어로 제작된 '커버데일 성경(the Coverdale Bible)'을 발간하게 하였다. Hur(2005)는 성경표지에 모세와 예수, 헨리 8세로 이어지는 형상을 정면으로 묘사하게 지시함으로써 헨리 8세의 왕권을 종교적으로 확장시킨 이미지전략이라고 하였다. Figure 10은 1539년에 발간된 '대성경(the Great Bible)'의 표지로 왼쪽 그림은 헨리 8세가 성경책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윗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준 것이다. String(1996)은 대성경의 속표지에 헨리 8세가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 Verbum Dei)을 전달하는 종교적 수장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King(as cited in Hur, 2005)은 이 표지에 나타난 헨리 8세의 스타일을 신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신정적 통치자로서의 왕의 권력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Figure 10에 묘사된 헨리 8세의 스타일 역시 모두 정면을 응시하는 형태로 이는 신 중심의 중세시대에 정면을 향한 예수나 성인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왕권의 신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11은 영국 웨체스터의 주교인 Hugh Latimer(1487~1555)가 헨리 8세에게 그 당시 관례였던 금대신 성경을 바치는 모습으로 교권이 왕권에 예속되어 있음을 상징한 그림이다("King Henry VIII

- Great British anti-heroes", 2013). 휴 래티머는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의 궁정사제로도 활동하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성공회 주교이다("Hugh Latimer", 2013). 헨리 8세의 종교적 권력 이미지는 잦은 이혼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킨 로마 교황청으로 부터의 독립과 영국 국교를 창시한 종교의 수장으로서의 절대적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된 이미지 전략의 한 형태이다. Hur는 이러한 헨리 8세의 이미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잦은 이혼과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전파하기 위해 절대 권력의 이미지를 생산하여 확산시키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물로 왕은 다양한 방식의 시각적 이미지 전략을 통해 무의식 속에 복종과 충절의 코드를 입력시키는 복종 내부화를 시도하였다. (Hur, 2005, p. 20)

3. 외교적·사회적 영향력

헨리 8세의 외교적 위상은 근세시대 유럽의 외교 정책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실질적으로 헨리 8세는 1518년 런던조약을 기점으로 유럽 군주들 간의 상호 적대감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영국의 외교적 위상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럽의 주요 세력 모두를 아우르는 런던조

Figure 10.

The Great Bible Title-Page

- <http://www.fowlerbiblecollection.com/great-bible.html>

Figure 11.

Henry VIII & Hugh Latimer

- <http://www.telegraph.co.uk>

Figure 12. The Field of Cloth of Gold

- <http://www.royalcollection.org.uk>

약이 결실을 맺은 1510년대의 영국 외교 정책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헨리 8세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밝히고 있다. Potter(as cited in Hur, 2005)는 1518년의 런던조약을 정점으로 헨리가 담당했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은 헨리의 명예와 지위를 고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Minjae Kim (2001)는 헨리 8세의 전 재위기간을 통틀어 런던조약이 맺어진 1518년에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런던조약은 유럽 군주들 간의 상호 적대감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외교조약으로 헨리 8세의 외교적 영향력은 영국의 위상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이 조약을 기점으로 모든 외교 정책의 수장이 교황으로부터 헨리 8세에게로 돌아갔다. Figure 12는 1520년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헨리 8세의 모습을 담은 ‘금란의 들판(Field of Cloth of Gold)’이다. 이 그림의 제목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황금빛으로 치장된 의례행렬 속에 나타난 헨리 8세의 장엄한 스타일은 영국과 국왕의 위상이 막강했음을 만민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glo(as cited in Hur, 2005)는 헨리 8세가 그 어느 군주보다 위대한 왕이 될 것임을 찬양한 외국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의례의 장관을 묘사하였다.

스커트와 말의 장식에는 2000 온스의 금과 1,100개의 큰 진주알이 사용되었으며 임시궁전과 텐트는 금실과 금분으로 장식된 천으로

치장되었고 임시궁전의 대연회장은 영국 궁전의 방보다 크다. (Hur, 2005, p. 19)

금란의 들판에서의 헨리 8세의 스타일은 금빛의 광채와 정면 응시의 경이로운 모습으로 행렬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왕위위용과 부의 과시를 나타내고 있다. 금은 왕실의 상징으로 존귀함과 우월성을 상징하며 정면 응시는 권위의 절대성을 상징한다. Hu는 금란의 들판에 나타난 헨리 8세의 권력과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군주의 덕성과 명예를 선포한 것이다. (Hur, 2005, p. 21)

James(as cited in Hur, 2005)는 군주의 명예와 권력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했으며 세계의 주목을 끌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란의 들판에 묘사된 헨리 8세의 스타일은 권위를 인정받은 외교적 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드러낸 시각적 권력이미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Figure 13은 1513년 프랑스를 공략하기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막시밀리안 황제와 동맹하여 화려한 행렬을 하고 있는 테루안느 열병식이다. 이 열병식

The Military Inspection of Thérrouanne

Figure 13.

The meeting of Henry VIII and Maximilian at the Siege of Thérrouanne

-http://en.wikipedia.org/wiki/Battle_of_Guinegate (1513)

Figure 14.
The Ambassadors

- [http://en.wikipedia.org/wiki/The_Ambassadors_\(Holbein\)](http://en.wikipedia.org/wiki/The_Ambassadors_(Holbein))

Figure 15.
The Coin from the Reign of Henry VIII

- <http://tudorhistory.org/henry8>

Figure 16.
Cameo of Henry VIII and Prince Edward

- <http://tudorhistory.org/henry8>

은 막시밀리안 황제가 군사적 외교에 있어 헨리 8세의 통치하에 예속됨으로써 헨리 8세의 영향력을 만국에 알리게 되는 의식이다. Loades(as cited in Hur, 2005)는 황제 막시밀리안과 헨리 8세와의 만남에 대해 헨리 8세의 통치권과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게 된 역사적 만남이라고 하였다.

Figure 14는 1553년에 제작된 홀바인의 작품 ‘대사들(The Ambassadors)’이다(North, 2004). 왼쪽의 화려한 옷을 입은 Jean de Dinteville은 영국에 온 젊은 프랑스 대사이고 오른쪽의 기독교적 복장을 한 George de Selve은 교황청 대사이다. 왼쪽의 웅장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 대사의 복식 스타일은 어깨

에 패드를 넣어 부풀린 더블릿과 모피로 된 코트 등의 복식 스타일과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자세 등이 헨리 8세의 스타일과 유사한 형태로 헨리 8세의 스타일은 귀족들에 의해 모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5, 16은 헨리 8세의 모습이 새겨진 코인과, 헨리 8세와 에드워드 왕자가 새겨진 까메오(cameo)이다. 카메오와 코인은 헨리 8세의 초상화와 더불어 백성들이 소장하던 애장품으로 헨리 8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암시하는 단서이다.

헨리 8세의 스타일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는 화려한 복식 스타일과 위용 있는 소마틱 스타일을 통해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 수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부피가 크고 장엄한 복식의 형태와 소재 및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석류와 색채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위용의 카리스마 짙은 표정과 스타일 등 권위를 상징하는 일련의 다양한 코드는 권력의 시각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동인이며 복종과 추종의 기표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근세시대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진 헨리 8세의 스타일에 나타난 권력이미지를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리더십과 복식이라는 코드를 정치·사회적 현상과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근세시대 권력의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헨리 8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 스타일과 소마틱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헨리 8세의 스타일에 표현된 정치권력의 이미지는 현대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복식을 통한 패션 이미지와 스타일이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각인시켜주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정치지도자의 이미지 정치성을 제언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전략적 의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종교적, 외교적 수장으로서 헨리 8세의 스

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와 모방을 통한 복식의 신분 상징성과 계급차별화를 재구성한 하향전파설로 사회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권력의 주체인 상류층은 하류층과의 차별화를 위한 도구로 복식이나 신체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위엄과 과시를 나타냄으로써 권력의 내면적 속성을 가시화하며, 하류층은 상류층이 소유한 권력이미지에 대한 환상과 모방심리로 상류층의 스타일을 추종함으로써 권력에 내포된 계층적 힘의 논리를 유지해나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리더의 스타일은 대중의 지각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확산됨으로써 권력 이미지를 형성하는 추종과 복종의 단서가 된다.

또한 근세시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해간 정치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권력이미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복식학적 연구 외에도 정치적, 종교적, 외교적 측면과 접목하여 리더십,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첫째, 왕권의 강화가 절실했던 절대왕정시대의 정치 리더였던 헨리 8세에게 있어 권력이미지를 위한 이미지 전략은 보이지 않는 파놉티콘으로서의 권력을 형성화하는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함과 동시에 권력이론의 중심에 있는 정치지도자나 리더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파급시키고자 연구하는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이미지 전략 수립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파급효과가 큰 정치적 리더의 스타일은 대중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사회화의 주도적 대행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리더십과 복식문화의 사회적 전파에 대한 영역의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세시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군주의 초상화에 표현된 복식 스타일과 소마틱 스타일의 권력이미지에 대한 사례분석은 이미지라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치지도자나 사회, 문화, 예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간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권력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복식과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해온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의 도구로써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복식과 신체의 스타일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복식의 영역을 정치,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하여 연구 계발함으로써 의류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권력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속성과 복식의 하향전파설을 통해 전달된 리더의 스타일은 의류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복식이 대중에 미치는 기호학적 의미와 상품화된 복식의 산업적 측면을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스타일에 나타난 권력이미지 현상을 통해 논의된 정치, 역사, 사회적 측면의 연구는 다양한 개념이나 영역들 간의 통합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ourdieu, P. (2012). *Politics of habitus*. (S. Hong, Trans.). Seoul: Hyuna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Branden, B. (2004). *Image of power*. (J. Kim, Trans.). Seoul: Communication books.
- Chung, H. (1997). *A history of fashion*. Seoul: Kyomunsa Publishing Ltd.
- Foucault, M. (2003).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S. Oh, Trans.). Seoul: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Fuchs, E. (2001). *History of costume I*. (K. Lee, & J. Park, Trans.). Seoul: K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Hugh Latimer. (2013). *In Wikipedia*. Retrieved March 17, 2013, from http://en.wikipedia.org/wiki/Hugh_Latimer.
- Hur, G. (2005). Royal honour: Wars of Henry VIII and the visible images of tudor kingship.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13, 26-27.
- Kim, M. [Mikyung]. (2001). English diplomacy in European context: The treaty of London(1518) and the security of Tudor England.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6, 1-43.
- Kim, M. [Minjae]. (2012).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in the fashion politics phenomenon of leade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5), 97-100.
- King Henry VIII - Great British anti-heroes. (2012). *The Telegraph*. Retrieved March 17, 2013, from <http://www.telegraph.co.uk/expat/expatpicturegalleries/7026888/Great-British-anti-heroes.htmlimage=6>
- North, J. (2004). *The Ambassadors' secret: Holbein and the world of the renaissance*. London: Phoenix.
- Shin, Y. (2008). *Hans Holbein's portrait of Henry VIII and political propaganda focussing on the "Whitehall Mu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husterman, R. (2010). *Consciousness of body*. (H. Lee, Trans.). Seoul: Bookkorea.
- Shusterman, R., Lee, H., Kim, M., Kim, M., Lim, Y., & Shin, H. (2013). *Somatic style*. (H. Lee, Trans.). Seoul: Bookkorea.
- Simmer, G. (2006). *Leading of simmer's modernity*. (D. Kim, & M. Yoon, Trans.). Seoul: Saemulgyul.
- Sohn, J. (2007). La relation reciproque entre la culture de la cour et le pouvoir politique a la Renaissance, [A reciprocity of the culture of cou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renaissance]. *Etudes de la Culture Francecise et des Arts en France*, 21, 1-14.
- String, T. C. (1996). *Henry VIII and the royal suprem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U. S. A.

접수일(2013년 7월 23일)

수정일(1차: 2013년 8월 20일, 2차: 2013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4일)